한국사회과학 제22권 제2호(2000): 37~75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지역 조사와 구술사 방법론:
경험과 성찰, 새로운 출발

김귀옥*

이 글은 글쓴이가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했던 지난 시기 경험을 성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96년 9월부터 2월까지 속초에서의 조사와 1997년 여름 한달간 김제에서 조사했던 경험을 되돌아보고 다음 번 조사에서는 진일보한 조사·연구하기 위한 반성과 교훈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다른 연구자들에게 내 소박한 조사 경험을 고백하고 비평을 받음으로써 지난 경험이 다른 관련 연구자들에게 '반면교사'가 되도록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글쓴이의 학위논문은 속초와 김제의 월남인 정착촌을 주무대로 삼고 있다. 월남인의 생활 경험을 통하여 '월남인'으로 대변되는 반공주의적인 정치의식과 그것에 기반 하는 정체성이 허위적임을 밝혀내었다. 또한 월남인의 생활경험을 통해 그 정착촌이 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연구 주제를 발견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는 지역 조사와 구술사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구술사 방법론은 이 방면의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월남인의 실체에 접근하는 지름길이 되어 주었다. 한국전쟁 후 남한에 내려와 정착한지 수 십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월남인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억압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들을 심층 면접해 나가는 동안, 회를 거듭할수록 그들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그들 잊어버렸던지, 또한 스스로 왜곡시켰을 지도 모를 자신의 기억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을 주목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글쓴이 자신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았던 여러 가지의 방법론적 미숙함, 인간에 대한 이해의 부족함 등을 이 글에서 정리하

*경남대학교 북한전문대학원 객원교수 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초빙연구원. 전공분야는 역사사회학, 북한사회론, 민족사회학, 성과 사회연구이다. 주요저서로《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1999),《북한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2000),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 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 미군정 통치와 반성 —"(2000), "아래로부터의 반공이데올로기 허물기: 월남인 구술사를 중심으로"(1999), "북한사회 연구의 동향과 쟁점안"(1998) 등이 있다(연락처: 019-228-1446, E-mail: freeox8@orgio.net).

였다.

또한 연구자에게 참여 관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유효하다거나 고통스러운지도 지적하고 있다. 참여 관찰은 지역 주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이 일상적인 상황이나 변화된 상황에 어떻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방법론이다. 동시에 구술사 방법론을 수행하기 위한 안내자가 된다는 점에서도 참여 관찰은 중요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참여 관찰은 익숙함과 반비례함으로써 장기 체류하여 현지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참여 관찰한다는 것이 어렵기도 했고, 대상화시켜야 한다는 고통도 수반되었다.

구술사 방법론과 같은 질적 방법론은 문자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대단히 유용한 접근방법론이지만, 때때로 그 자체로 완전하기 어렵다. 양적 방법론이나 문헌 분석이 수반되는 것은 질적 방법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물론 그 역도 성립된다. 월남인 연구에서 사용한 이 방법론은 향후 이 방면의 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세계 주민과 지역, 여성, 장애인, 노인, 빈민 등의 연구에도 널리 쓰일 것으로 본다.

1. 왜 지역[1] 조사와 구술사 방법론인가

1) 글의 목적

이 글은 글쓴이의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했던 지난 시기 경험을 성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96년 1996년 9월부터 2월까지 속초에서의 조사와 1997년 여름 한달간 김제에서 조사했던 경험을 되돌아보고 다음 번 조사에서는 진일보한 조사 · 연구하

1) 지역(locality)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다의적이다. 인류학에서는 주로 '현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글쓴이도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는 없다. 그러나 현지라는 용어만으로도 '인류학'적인 글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선입견을 교란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지역'이라는 애매한 말로 이 글을 시작한다. 또한 과거에는 지역(=현지) 조사나 구술사 방법론과 같은 질적 연구는 사회학에서도 종종 써온 방법이었는데, 1980년대를 경유하면서 사회학이 인류학에 질적 연구의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그런 분류가 정착된 듯 싶다. 어쨌든 글쓴이로서는 연구방법론으로 사회학/인류학으로 구분하는 기존의 분류법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현지(field)라는 개념을 차용하지 않고 지역이라고 명명하였다.

기 위한 반성과 교훈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다른 연구자들에게 내 소박한 조사 경험을 고백하고 비평을 받음으로써 지난 경험이 다른 관련 연구자들에게 '반면교사'가 되도록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글쓴이의 학위논문은 속초와 김제의 월남인[2] 정착촌을 주무대로 삼고 있다. 월남인의 생활 경험을 통하여 '월남인'으로 대변되는 반공주의적인 정치의식과 그것에 기반 하는 정체성이 허위적임을 밝혀 내었다.[3] 또한 월남인의 생활경험을 통해 그 정착촌이 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준 바 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지역 조사와 구술사 방법론을 수행하였는가?

2) 우연과 필연으로 점철된 지역 조사

우선 지역 조사를 하게 된 배경부터 밝히고자 한다. 원래 나는 지역 연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다. 오히려 분단문제와 월남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관심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다. 월남인 문제를 심도 있게 조사하기 위하여 생활세계에 살고 있는 월남인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할 필요를 느꼈고 그러한 필요성이 정착촌을 찾도록 했다. 기왕에 대중매체에 의해 세간에 잘 알려져 있던 속초 청호동 '아바이마을'과 그 월남인이 내 문제의식의 적임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속초로 갈 때만 해도 나는 지역맹(local-blind)에 가까웠다. 그 공간이 서울이면 어떻고 다른 지역이면 어떠랴? 속초와 월남인의 관계를 월남인의 고향인 북쪽이 가깝기에 그들이 속초에 모여 사는가보다라고 추정할 뿐 그 외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무한 상태였다. 어떤 의미에서 지역은 내 연구의 장애물이었고 무시하고 싶은 대상이었다. 아마도 지역에 대한 기존 연구의 부재 상태에서 나는 익숙한 일상생활세계를 떠나 할 수 없이 '낯선' 타 지역으로 떠나야 했던 부담감도 컸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과 그 연구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속초로 출발한 것은 조사와 연구의 속도를 더디게 만든 장애요소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에 대한 새로

---

2) 월남인은 해방 이후 분단되면서부터 한국전쟁 시기 동안, 북쪽 고향을 떠나 이남으로 내려 온 사람을 가리킨다. 특히 이 두 정착촌은 주로 한국전쟁 시기 월남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이러한 문제의식을 집약한 글이 "아래로부터의 반공 이데올로기 허물기: 정착촌 월남인의 구술을 중심으로"(《경제와사회》 1999 가을호)이다.

운 발견을 하도록 만들었다. 즉, 월남인을 통하여 "왜, 어떻게 그곳이 정착촌으로 만들어졌을까?", 또한 근대의 공동체 해체 전략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정착촌은 살아남았을까"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을 끊임없이 던짐으로써 조사·연구에 또 다른 긴장을 갖고 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연구가 잘되었는가는 별문제이지만.

이러한 가운데 '장소'의 발생과 형성에 얽힌 현대사, 즉 시간과 공간이 접목되는 지점과 만나게 되었다. 즉 한국사회가 겪어 온 독특한 시간 속에서 새롭게 공간이 형성되어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속초나 김제는 모두 충분한 차이를 보이면서도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4] 특히 속초의 경험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38선 이북지역이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5] 또한 아바이마을이나 김제 용지농원 자리는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오갈 데 없는 몇몇 빈민들만 살만큼 주거부적격지였다. 그런 비정주지에 주변인(marginal person)으로서 월남인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삶의 장소[6]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지역 조사는 참여관찰법을 위주로 문헌 자료 분석을 보조로 하여 진행되었다. 글쓴이의 졸저(1999)에서 지적하였듯이 대표적인 질적 방법인 참여관찰법(participant observation)을 통하여 월남인 정착촌의 운영체계와 의사소통망, 월남인들간의 관계, 월남인들의 정체성과 지역 원주민에 대한 태도 등을 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그것은 정착촌 월남인들이 인근 원주민의 관습이나 의식주 생활에 어느 정도 동화되었는지, 동화에 대한 의식과 실천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정부 당국이나 정세에 대해 어떤 견해나 입장, 행동을 취하는지 관찰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나아가 당시 속초시 청호동은 '신수로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청호동 정착촌 해체 상황에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를 보는데도 참여관찰법은 도움이 되었다.

한편 참여관찰법은 구술사 방법론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도 필수적이었다. 지역 조사에서 파악된 그 지역의 사회적 관계망과 권력 관계망은 구술사 방법을 전개해나가는데 씨실과 날실의 역할을 하였다. 만일 권력 관계망을 씨실로, 사

4) 글쓴이의 졸저(1999다) 제2부 5장(학위논문(1999나) 3장)을 참고 바람.

5) 속초 지역 사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관련된 관심이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 미군정 통치와 반성"(《경제와사회》 2000 여름호)에 나타나 있다.

6) 장소는 항상 인간활동의 산물을 드러내 준다. 그것은 늘 공간과 자연을 전유하고 변형시키는 것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즉 장소란 시간 및 공간상에서의 지속적인 인간활동 —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인간의 경험 — 에 의해 특성이 부여된다(손명철, 1994: 230).

회적 관계망을 날실로 볼 수 있다면 그 씨실과 날실로 엉성하게나마 교직된 직물의 바탕 위에서 구술자(narrator)와 조사자(interviewer)와의 대화와 면접 내용은 '잊혀지고' '가려지고' '비틀린' 개인의 경험과 정체성이라는 수로 짜여질 수 있었다. 따라서 글쓴이에게 속초나 김제라는 지역은 구술사 방법론을 통하여 월남인의 생활경험을 추적하고 그들의 정체성에 접근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우연하지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 공간이었다. 그 공간은 내게 암호로 다가왔고 참여관찰법에 의해 발견된 인지 지도(cognitive map)는 구술사 방법론을 원활하도록 해주었다.

3) 구술사 방법론

(1) 구술사 방법론 습작기

내가 어떻게 구술사 방법론을 택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력을 정리해두고 싶다. 그 관심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은 1988년이었다.[7] 이 무렵 나는 국회의원 비서로 있으면서 구체적인 역사와 만날 수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민중사에 대한 관심이 구술사의 힘을 발견하게 했다. 당시 나의 상관인 국회의원은 1974년 민청학련사건의 주요 대표자로서 사형을 구형 받은 사람이었다. 나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우연히도 그의 전기문 초고를 집필하게 되었다.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의 생애를 구술하게 되었다. 그 작업은 정치적이고 억압적인 상황과 사실을 접근하고 인식하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감각을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80년대말 민중사에 대한 들끓는 관심은 기존 문헌 연구에 대한 일정한 문제제기와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허상을 폭로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민중사가 어디에 있는가[8]이었다. 1988년, 나는 현대사를 연구하는 진보적인 동아리

---

7) 그 전사를 들라면 1983년 사회학과에 입학한 이래로 처음 받아본 지적 충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해 봄, 허석렬선생님의 난곡 비공식부문 연구에 1학년들이 조사원으로 동원된 적이 있었다. 그때 허선생님은 우리에게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주면서 질문지를 작성하되 간단한 생애사 구술을 받도록 훈련을 시켰다. 그 때야 사회학 방법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으나 어렴풋하게나마 사회학 방법이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다. 잘 수행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작업 자체가 흥미롭고 재미있게 생각되었다.

8) 물론 '누가 민중인가'가 먼저 질문되어져야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회학이나 역사학의 중

에 발을 내밀고 있던 중, 그 대답을 찾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었다. 당시 몇몇 역사 연구자들이 구술사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받은 충격은 훗날에도 지속되었다. 이후 나도 간혹 그런 작업을 하면서 기억을 재현(representation)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지만 흥미로우며 많은 잠재성을 가진 작업이라는 것을 배워나가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구술사 연습을 한 것은 1995년 멕시코계 한인 연구였다. 다이아스포라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했으나, 얼마 안 되는 연구경비[9]와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 지구 반 바퀴 돌아 '맨 땅에 박치기' 하는 심정으로 90년 전에 멕시코에 건너간 한인 2, 3세들을 만나서 한 작업은 구술사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주었다. 지도에서 배제되었거나 무인화된 섬이나 지역이 어떻게 지도 위에 그려질 것인가? 역사에서 배제된 사람들-역사적 · 사회적 소수, 민중, 여성, 노약자 등-이나 사실을 어떻게 재현하고 기록할 것인가? 구술사 방법론이 닫힌 역사의 문을 여는 유일한 '천국의 열쇠'는 아닐지라도 여러 열쇠 중 하나이며 역사 자체를 풍부하게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2) 구술사 방법론의 필요성과 약점

구술사(Oral History)란 무엇인가를 정리하기란 쉽지 않다. 요우(Yow, 1994)는 구술사(Oral History)라는 말을 생애사(life history), 자기 보고서(self-report), 개인적 서술(personal narrative),[10] 생애이야기(life story), 구술 전기(oral biography), 회상기(memoir),[11] 증언(testament), 심층면접(in-depth-interview)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요한 논쟁으로 되었다.

9) 연구비는 연구자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점에 지나치게 용감했다. 1995년 멕시코 20일간의 연구여행을 나는 전적으로 개인 경비로 충당했다. 이것은 연구결과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연구성과물을 (안)내도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그때 연구비를 후원 받았다면 보다 책임감 있는 결과물을 내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여행 후 한편의 기행문과 한편의 논문을 쓰긴 했지만, 후속 경비의 부족으로 그때의 녹음테이프를 아직도 풀지 못했고, 녹화물을 편집하기는 했으나 한국어를 집어넣지 못해 공개도 못하고 있다.

10) 개인적 서술이란 생애사, 자서전, 전기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구술자의 개인적 경험과, 자신과 타자들에 대한 개념을 그 주제로 하는 자기성찰적인 1인칭 서술을 의미한다(Cranpanzano, 1986; 윤택림, 1994).

11) 회상기는 보고되거나(reported) 녹음된(taped) 것이다(Yow, 1994).

사용하고 있다. 구술사의 정의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는 어떤 사람들의 기억이 구술을 통해 역사적 자료로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다(윤택림, 1994). 기존의 문헌이 주로 대부분 지배집단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역사에서 배제되고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피지배계층의 삶을 역사의 무대위로 올려놓는데 구술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12]

나의 학위논문은 월남인의 생활 경험을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추적하며 기존의 문헌에 등장한 월남인과의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를 발견하는데 있었다. 연구의 출발에서 나는 역사의 '전면(前面)'[13]에서 획일화된 월남인의 경험이 그 이면(裏面)을 들여다볼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무척 궁금하였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월남인의 주어진 위치는 일상세계에 놓여져 있기보다는 정치적이고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세워져 있어 왔다. 그들은 반공의 화신이고 남북 체제 경쟁에서 남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산증인으로 회자되었다. 그들은 6 · 25나 8 · 15, 추석 명절이나 남북대화 —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 가 개최될 무렵이면 분노하거나 울부짖는 사람들로 고정 관념화된 사람들이다. 과거 반공이 맹위를 떨칠 시기에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수호하고 생산 및 재생산하는 첨병 가운데 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가운데 1990년대 반공의 서슬이 녹이 슬어가고 있을 무렵부터 몇 몇 월남인에게서 소문으로 존재하던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구조화된 질문지 조사에서도 반공의 아성을 도전하는 가설들이 제시되었다. 1993년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면서 "어떤 동맹국도 동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고 했던 코페니쿠스적인 취임사 이후에도 정권은 반공과 동족의 양극단을 오갔다. 그럼에도 이제는 과거 무소불위의 반공을 휘두를 시기는 지났다는 판단에서 "지금이야말로

12) 민중사를 접근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자료 가운데에는 민속과 구전, 민화, 민담, 민요 등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양반문헌에 실린 민중에 대한 언급도 하나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지배계급의 눈에 반영된 것일 뿐 민중적 관점이 배제되었기에 위와 같은 자료들이 민중사 연구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13) '전면'이라는 말은 고프만(Goffman, 1987)의 용어이다. 그에 따르면 전면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것이므로, 하나의 주어진 과업을 공연하는 사람이 몇 개의 전혀 다른 형태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전면을 스스로 선택해야만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택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이며 월남인이 전면을 선택하는 지점에는 반공주의가 작동하고 있었다.

월남인들의 진실된 기억을 알 수 있을 때"이다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판단에서 월남인 연구를 하기로 작정하였으나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놓고 고심하였다.

그 가운데 구술사 방법론은 월남인을 연구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론으로 생각되었다. 그것은 첫째,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한 사람들에게 유용하다(Hoopes, 1995; 윤택림, 1994)는 장점을 갖고 있다. 1970년대 구술사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면서 구술사가들은 밑으로부터의 역사(history from the bottom up)를 창출하기 위해 특권이 없는 사람들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데 기여하여 왔다(Leydesdorff, Passerini, and Thompson, 1996). 한국현대사에 있어서 '반공'의 기억과 언어, 문자는 그것에 대항하는 기억과 언어, 문자를 탈역사 · 탈문헌화해왔다. 그간 '월남인' 또는 '실향민'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반공의 기억과 언어, 문자를 재생산하는 중요한 주체로 역할 했다. 그래서 그것에 반하는 월남인의 경우에는 문맹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거나 쓸 수 없었다.[14] 이제 배제된 기억과 언어를 역사의 무대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게 할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구술사 방법론이다.

둘째, 기존의 월남인 관련 연구인, 박명선(1983)이나 강정구(1992), 이동원 · 조성남(1997)의 연구는 주로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월남 동기 등의 문제에 접근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결과는 가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이동 이유는 주로 자기 합리화한 경우가 많고 사회 ·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이유만 제시하는 경향이 많다(Fawcett and DeJung, 1982; 변용찬, 1991 재인용). 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를 안고 있는 월남인에 있어서 월남 동기를 질문지법으로 묻는 경우, 의미 있는 대답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쉽게 말해 월남 동기와 같은 질문에 대해 월남인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라는 정답을 알고 있다.[15] 또한 정치적으로

14) 이러한 점은 최근 노근리 사건과 같이 미군이나 남한군에 의해 저질러진 양민학살사건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그간 수많은 이 땅의 민중들은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당해 왔다. 남한의 민중은 당시 경험을 말하는 것만 억압당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도 질곡당해왔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일부 월남인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수용하고 내면화시키고 나아가 반공 대열의 전위에 나섬으로써 상대적으로 호혜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엘리트층으로 되기도 했다. 그런 월남인을 학위논문에서는 '엘리트층 월남인'으로 명명하였다.

15) 피조사자들이 정답을 제시한 조사의 하나가 이동원 · 조성남(1997)의 연구이다. 그 조사의 질문지에서는 월남시기에 '45년 이전' 지표도 분류해 두었다. 월남 동기로서 '정치 사상적 탄압이나 재

예민한 문제를 형식적인 질문지에 제대로 대답하기란 쉽지 않다.[16] 설령 그들의 기억이 반공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거나 배제하기 위해서는 전후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맥락을 묻기에는 구술사 방법론이 적절하다.

시기적으로 볼 때 나의 구술사 방법은 두 가지 점에서 적절했다. 월남인은 대개 노인층이다. 노인층의 대부분이 문맹은 아닐지라도 지식을 다루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 문자화된 방법보다는 말을 통한 접근법에 더 익숙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구술사 방법은 여타의 방법에 비해 유력한 바가 있다. 또한 보다 더 중요한 점은 1990년대 현재, 과거 어느 때보다도 반공주의의 힘이 약화되어 있다는 시기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내가 아무리 반공에 의해 오염된 기억과 언어를 씻어내고자 하여도 반공주의의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 작동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획은 '그림의 떡' 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적 분위기는 나의 문제의식을 구술사로 접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과 시기적 적절성에도 불구하고 구술사 방법에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17]

첫째, 그 방법은 '말' 을 매개로 하는데 말과 사물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순수한 구술적 전통이나 일차적인 구술성[18]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Walter J. Ong, 1997[1982]). 월남인이 말하는 각

산 몰수' 에 응답하였다는 것은 월남인=반공 도식에 들어맞는 해석이지만, 1945년 이전은 일제시대이므로 그러한 동기가 있을 수 없다. 피조사자들이 도식적인 정답을 택한 것에 대해서 저자들은 아무런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만일 구술사 방법론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면 왜 맥락에 맞지 않는 응답을 하였는가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16) 나와 비슷한 시기에 월남인을 조사한 연구자가 있었다. 그는 어느 이북 출신 군민회원들에게 우편을 통해 월남동기와 남북관계문제에 대해 조사했다. 그는 실수로 어느 부수에 같은 면을 두 장 철했다. 응답자는 같은 장에 대해 전혀 일관성 없는 다른 대답을 했다. 이것은 질문지를 대하는 일반인들의 거부감과 형식주의적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양적 조사는 신뢰도를 제공해줄 수 있다' 는 환상을 깨는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

17) 이하의 약점에 대해서는 글쓴이뿐만 아니라 많은 구술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김기석(1998)이나 정혜경(1999), 윤택림(1995) 등을 참고 바람.

18) 일차적인 구술성은 월터 옹의 용어이다. 옹은 일차적인 구술성을 "쓰기(writing)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술성" 으로 명명했다(Ong, 1997: 14).

종의 사물이나 사람이 얼마나 구체성을 갖는지를 조사자가 완전히 파악해서 그 의미를 공유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둘째, 구술사를 분석하고 자료화하는 데에는 조사자의 해석이 개입한다. 개입의 정도는 연구의 목적이나 조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조사자의 해석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19] 해석자의 능력과 입장에 따라 같은 기억도 다각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해석자의 위치는 항상 세밀히 검토해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윤택림, 1994). 그런데 이 문제는 구술사를 둘러싸고 지적되기 쉬우나 학문과 이론의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관련지어져 있다. 결국 해석권 자체는 일종의 학문적 헤게모니 투쟁이다.

셋째, 언어화되는 구술은 대개 구술자의 '기억'이다. 그런데 기억은 현재 자신의 생각이나 조건에 영향을 받기 쉽다. 또한 노쇠에 의해서 기억은 흐려지기도 한다. 다시 말해 기억은 믿기 어려워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어렵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기억은 참으로 입증하기 곤란한가? 구술을 통한 사실의 입증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경우는 수 없이 많다. 실제 알렉스 해일리의 할머니가 그에게 그의 아주 오랜 선조 할아버지 이름과 노예 조상의 첫 번째 주인 이름은 훗날 기록문헌에서 재조사되었을 때 사실로 판명되었다(Hoopes, 1994). 글쓴이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 나는 1951년부터 1954년간 속초지역에서 실시된 군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당시 속초지역에 있던 1군단 종군신문인 '동해일보' 기자였던 한 사람을 면접하는 과정에서 당시 속초지역 민사처장의 이름을 듣게 되었다. 우선은 확실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육본 자료실에 당시 속초 지역에 주둔했던 민사처장의 이름을 조회하자 동명인이 나왔고 그가 육사 몇 기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육사 동창명부를 확인하여 그의 최근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그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는 실제 민사처장으로 속초에 주둔한 바 있었다.[20] 50년 가까운 시간이

19) 해석권은 지식과 사물을 둘러싼 중요한 권력의 하나이다. 이재열(1998)은 미국사회학의 한 경향으로서 양적 방법은 소장연구자들이, 질적 방법은 대가들이 취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재열이 대가와 질적 방법의 관계를 오랜 기간의 숙련도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은 흥미롭다. 또한 이 문제는 해석권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

20) 이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내는 과정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나는 연고주의에 따름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었다. 한국 사회의 구조를 아는 사람으로서 합리적 과정에 대한 실험을 함으로써 중요한 시간과 정신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있다면

흘렀고 그 기자는 민사처장을 1년 남짓한 기간이 그저 알고 지냈을 뿐인데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기억을 완전무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지만 기억은 1차 자료의 하나로 취급할 수 있다.

넷째, 말과 기억의 주관성(subjectivity) 때문에 그것을 학술자료로 다루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의식과 능력에 따라 같은 사물 또는 사람이나 사건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Yow, 1994). 이러한 말에 대한 평가로 인해 사실상 실증주의 역사나 학문은 말이나 말로 된 자료를 무시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반시나(Jan Vansina)는 기억과 구술사 자료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적 자료에는 처음부터 주관성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순수한 객관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왜 어떤 기억은 기록되어 문헌화되는데 반해 어떤 기억은 탈역사 · 비사실화되는가? 이 근본적인 것에 대한 물음의 대답을 푸코에게서 찾을 수 있다. 역사란 지식과 권력의 한 형태이다.

최근 우리 삶 가까이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김현식, 1999; 김현식, 1998; 김기봉, 1996). 근대 이성에 갇힌 사실은 이미 권력화 · 전체화하여 또다른 절대주의를 낳았다. 근대 이성이 낳은 기형아의 하나인 반공주의는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역사나 사실을 억압하고 왜곡시켰다. 오히려 주관성이야말로 절대주의화한 객관주의의 신화를 도전하는 중요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구술자료의 주관성은 다른 문헌 자료의 타당성을 도전하는 파라다임으로서 복무하고 있다(Leydesdorff, Passerini, and Thompson, 1996).

다섯째, 구술사 자료가 '빙산의 일각'이지 빙산 전체는 아니라는 점도 일반화 전략의 차원에서 보면, 구술사 방법론은 약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으로서의 개인의 삶과 생활세계는 역사와 사회구조의 반영물이자 사회의 구성물이다(Lefebvre, 1992). 그렇더라도 일각이 의미 있는 전체의 부분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스프래들리(Spradley, 1994[1988])의 충고를 들을 필요가 있다. 그는 '반복하는 것'만이 이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의 하나라도 보고 있다.

여섯째, 구술사 방법론이 얼마나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것의 취약점으로 꼽을 수 있다.[21]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반복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양적

합리적 과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야 정확한 사실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조사에서도 반복 조사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질적 방법은 반복 조사로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비일관적이며 불일치된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것은 바로 맥락의 문제이다. 맥락은 구술자의 환경에서부터 구술자와 조사자 간의 분위기, 사회·정치적 분위기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윤택림, 1995). 이점 역시 구술자료만의 문제는 아니다. 같은 문헌자료임에도 시대 조건과 맥락에 따라 상이한 관점에서 해석되고 평가되고 있다.

그 외에도 기존의 연구자들이 구술자료 사용을 꺼려왔던 이유로는 제3자가 그 자료를 체크할 수 없는 점도 들 수 있다. 현대에 발달한 좋은 녹음기와 캠코더와 같은 기계장비들[22]은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켰다(Caunce, 1994).

한편, 구술사 방법론은 자기 완결적이지 않다. 문헌 자료에 기반한 일정한 이론틀이나 분석틀, 개념틀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가운데 구술사 자료는 새로운 발견이나 기존 가설을 검토하는 지렛대가 되어 줄 것이다. 따라서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은 배타적이거나 경쟁적이라기 보다 상호보완적이다(이재열, 1998; Yow, 1994).

이 글에서는 지역 조사에서 구술사 방법론을 어떻게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에 국한하기로 한다. 조사는 크게 보아 네 단계로 나누어 전개되었다. 첫째, 조사지에 들어가기 전의 예비단계. 이 단계에는 사전 조사 단계도 포함된다. 둘째, 사전 답사 후 준비 단계. 셋째, 본 지역 조사단계. 이 단계에는 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워밍업 단계와 본격 실시의 단계로 또 나눌 수 있다. 넷째, 보고서 쓰는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 2, 3단계까지 다루겠다.

---

21) 한국에서 현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개 미국국립문서국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노획문서"를 금석지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김기석(1998)은 미군정 당시 학무국 관리와 구술을 하던 중 그는 미군정기 전직 관리에게 학무국 기록을 언급했다. 그 관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가?"라고 말하며 너털 웃음을 웃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나 동료 관리들이 당시 남긴 '공적'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 의심하며 차라리 자신의 생생한 증언을 기록으로 남길 것을 권했다고 전한다.

22) 기계장비는 구술사 방법론을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기계장비가 좋으면 좋은 구술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반드시 구술사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니므로 목적과 수단이 전치 되어서는 안 된다(Caunce, 1994).

2. 본 조사 예비단계

나는 두 개의 조사지를 선택했는데 처음부터 두 곳을 택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두 곳을 택하는 데에는 경비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일차 조사지인 속초를 조사한 후 후속 조사예상지인 김제의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작정했다. 결국 김제 '용지농원'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속초 조사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에서 온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감에서 왔다. 그 자신감이 '청호동 편향'으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제 조사에 나서게 되었다. 김제 지역 조사는 속초를 조사한 후 착수하였으므로 실시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지 않았고 조사 과정은 속초와 비슷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속초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되 필요시 김제의 경험을 덧붙이기로 한다.

1) 사전 조사 단계

월남인 관련 문제를 연구주제로 잠정 결정한 것은 1996년 1월이었다. 결정 후 우선 월남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 의식을 분명히 잡고 무엇을 조사하고 조사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에서부터 첫 단계를 출발하였다. 월남인 관련 자료는 기존의 문헌을 수집 · 검토하여 얻을 수 있었다. 이 단계에서 이북5도청과 그 산하기관인 동화연구소를 방문하여 관련 자료의 존 · 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곳에는 이북지역의 도, 시, 군, 읍, 면, 리별 각종 향토지는 갖춰져 있으나 월남인 정착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었다. 기존에 나온 연구성과물이나 대중매체에 실린 기사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다음, 조사지에 대한 확인작업이 필요했다. 첫 조사지로 속초 청호동을 결정한 1996년 초봄에 이미 '신수로개발'로 마을이 해체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동네가 남아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생각을 진척시킬 수는 없었다. 일단 속초에 거주하는 연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존재 여부와 시청 도시개발과를 통해 철거계획에 대해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청호동이 '이상무'임을 확인하였다.

그해 7월, 3박 4일을 예정하고 속초와 청호동을 사전 답사하였다. 청호동에 첫발

을 내딛던 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한 '낯설음'이다. 이 답사에서 크게 보아 세 가지 일을 했다.

우선 청호동에서 래포(rapport)를 형성하는 일을 했다. 첫날 청호동 길을 걷던 중 발견한 '청호동청소년야간공부방'에서 그 가능성을 직감했다. 야간공부방에 자원교사로 일하던 3명은 모두 청호동의 터줏대감으로서 월남인 2세에 해당하였다. 나는 그들을 설득하면 일단 청호동에 들어갈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을 설득하는데 3일이 걸렸다. 서울로 돌아오기 전 날밤에야 일정한 도움을 약속 받을 수 있었다. 이때 형성된 래포를 R1이라고 부르자.

그 다음, 도서관에서 속초와 청호동에 관련한 자료를 찾는 일을 했다. 나의 도서관이 되어 준 곳은 속초의 지역신문인, 《설악신문》사 자료실이었다. 신문에 게재된 청호동과 월남인 관련 기사와 속초시에서 발간한 기초 자료를 검토 · 복사했다. 이 과정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여러 가지 확보할 수 있었다. 자료에서 발견한 청호동 거주 인명은 될 수 있는 한 외워두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청호동에 대한 지도를 그렸다. 그 지도는 우선 머리 속에 그려졌고 그 다음 연구일기장에 그려졌다. 답사하는 과정에서 본 길, 특정 장소와 약도를 결합하여 내 나름대로 지도를 그려 청호동에 대한 감을 익혔다.

2) 사전 답사 후 준비 단계

사전 답사 후 본격적으로 속초로 떠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조사기간을 약 6개월로 예정하였기 때문에 준비 작업은 다양하고 복잡했다.

우선 속초 청호동 조사를 위한 여러 가지 문서를 만들어야 했다. 속초와 청호동, 월남인에 대한 자료를 목록화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간단한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계획서이지만 그 계획서는 내 연구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속초에 가서 나를 소개하는 얼굴이 되어 주었다. 또한 구술사 질문 항목도 대략적으로 짜두었다. 또한 개인경력서와 사회학과장 명의의 '협조의뢰서'[23]도 넉넉히 복사해 두었다.

---

23) 당시 나는 사회학과 박사과정수료상태에서 다른 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학과에서 협조의뢰서를 제공해 주었다. 학과장 명의의 협조의뢰서는 형식적이나마 나의 신원을 보증하는 증

다음, 일단 형성된 R1을 통해 하숙집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확인했다. 그 과정은 R1에게 내가 청호동에 내려갈 사람임을 확신시켜주는 효과도 있었다.

준비물 목록은 대단한 양이었다. 조사에 필요한 몇 가지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24]

> 녹음기 2대, 8mm 캠코더, 노트북 컴퓨터, 카세트 테입, 마이크, 8mm 녹화용 테입, 충분한 밧데리, 카메라 2대(흑, 백), 흑 · 백 필름, 컴퓨터 플로피 디스켓, 충분한 기록장, 복사용지, 필기도구, 가계도, 지도, 선물 2종(구술자용, 설문지 피응답자용), 이력서, 협조의뢰서 등등

필요한 물품 가운데 녹음 테입은 빨리 소모되므로 서울에서 도매로 대량구입하되, 부족분은 현지에서 조달했다. 녹음 분량은 1시간 짜리가 적당하지만 경비 때문에 주로 2시간분을 사용하였다. 그 외 장기 체류에 필요한 각종의 잡동사니도 많이 필요했다. 지방에 장기 체류한 경험이 없어서 이때 날마다 악몽을 꾸었다. 사진 현상료는 속초가 서울에 비해 비싸지만 사진 확인을 위해 속초에서 매번 현상하는 통에 돌아올때는 부피가 더 늘어나게 되었다.

3) 지역 정착 후 준비 단계

1996년 9월 1일, 속초 청호동에 도착하였다. 이 단계는 청호동에 안착하는 일로 시작하였다. R1은 R2에게 나의 소식을 전하여 R2가 나의 하숙방을 마련해 주었다. R2는 청호동 공부방의 자모회원 중 한 명으로서 나의 하숙집 주인이자,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며 나의 후견인이자 충고자가 되어 주었다. 또한 나는 가던 날로 청호동 공부방의 자원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공부방 사무실과 공간은 나의 중요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 주었다. 거기에는 컴퓨터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작업을 준비하고 정리하기에도 좋았다. 그러나 내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에는 컴퓨터 두

요한 서류였다.

24) 녹음기는 실제 주로 한 대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한 대는 고장에 대비해 항상 휴대하였다. 속초의 모든 소요 경비는 자력 부담이었다. 단, 김제의 경우에는 학과에서 받은 '효강연구기금'이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대가 모두 고장나 있어서 그것을 수선받는 일로 자원교사의 일이 시작되었다. 다음, 학생들과 상견례하고 학부모들에게 모두 전화하여 나를 소개하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그 다음, 나는 경력서와 협조의뢰서, 연구계획서 등을 봉투에 넣어 청호동장과 직원들을 필두로 조양동[25] 파출소장, 청호동 10개 통장, 대한노인회 청호동 지회 노인회장, 마을금고 이사장, 부녀회장, 오징어건조협회회장, 청호초등학교 교장 및 직원, 동네 유지 등을 찾아다니며 인사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처음에는 R2나 청호동사무소 사회복지계 직원과 함께 인사를 하러 다녔다. 낯선 연구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부드럽거나 수용적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아하거나 무관심한 표정이었다. 그들의 웃음은 자신의 직위에 대한 최소한의 예절이었다. 간혹 나의 연구에 관심 어린 말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다. 노인회장과 같이 나의 조사에 대해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하는구나"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청호동에 대한 자료와 시집을 빌려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앞의 단계에서 대강 짜둔 조사 항목[졸저(1999다) 부록 나: 심층면접 지침서]를 몇 번에 걸쳐서 완성하였다. 이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 상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약점이었다. 그래도 이 과정에서 R1과 R2의 역할은 중요했다. R1에게서 들은 자신의 성장과정이나 부모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와 R2와의 이야기는 동네의 특징을 파악하거나 조사 항목뿐만 아니라 조사 시 지켜야 할 지침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서 본 조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

3. 본 조사 착수

본 조사에 임하는 전 나는 준비 단계에서 얻은 정보와 일반 조사 원칙을 결합시켜 '구술자를 대하는 지침'을 만들어 보았다.[26]

---

25) 청호동에는 별도의 파출소가 없고 조양동파출소가 두 지역을 관할하였다.

26) 본문에 빠진 구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할 작업이 있다. 사용할 기계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밧데리, 필기도구, 녹음 및 녹화 테입, 사진기 필름 등은 충분한지 등을 살펴야 한다. 정신없이 가서 준비물들이 불비되어 당황했던 적도 한, 두 번 있었다.

첫째, 구술자와 조사자의 관계는 객체-주체의 관계가 아니라 주체-주체의 관계이다.[27]

둘째, 구술자에게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대한다. 설령 그가 조사를 거절하더라도 여전히 예의로서 대한다. 그러나 지나친 예의는 거리감을 줄 수 있으므로 자연스러움이 필요하다.

셋째, 구술자에게 나와 나의 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한다. 상호 깊은 신뢰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조사는 가급적이면 구술자가 가장 익숙한 장소인 그의 집에서 하도록 한다.

다섯째, 구술자를 방문하러 가기 전에는 방문한다는 연락을 취한다.

여섯째, 구술자를 방문할 때면 과자나 음료, 과일 등을 사가지고 간다. 구술자와의 식사는 그의 일상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사적인 친밀성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므로 즐긴다.

일곱째, 구술자와의 본 면접 전에는 그의 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고, 내가 무엇을 얘기 듣기 바란다고 먼저 설명을 한다. 또한 조사 항목도 미리 보여준다.

여덟째, 조사 결과는 학문적으로만 이용되고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됨을 확실히 한다.

아홉째, 면접 중에서는 구술자가 통제 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한다. 가급적이면 논쟁은 회피한다.[28] 그가 조사에 최대한 몰입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묘사하고 지명이나 인명도 구체화한다. 그가 당시에 썼던 용어(방언)나 불일치한 얘기가 나와도 그냥 들었다가 그 날의 조사를 마친 후나 다음 조사 때 반복 질문을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면접 기간 중이나 끝난 후, 구술자의 가족과도 될 수 있는 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구술자 설정을 정확히 해야 대상자는 주체의 식을 갖게 된다. 조사 후에도 그나 그의 가족과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

27) 이러한 원칙에 따라 면접을 마친 구술자에게 선물은 증정하지만 사례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8) 어떤 구술자는 본 면담이 진행될 동안에는 참았다가 면담이 끝나면 어떤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묻곤 했다. 이때는 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술자와의 깊이 있는 토론은 어렵더라도 그에게 나의 생각을 최소한도나마 표현하고 그의 얘기를 듣는 일을 여러 번 가졌다. 나는 구술자의 이러한 제안조차 피하는 것은 상호성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으로 생각했다.

가 원할 때에는 기록장을 보인다.

이런 원칙에 기반한 본 조사는 세 가지로 진행되었다. 첫째, 구술사 방법, 둘째, 문헌 자료 수집, 셋째, 구조화된 질문지를 만들고 조사하는 일이었다. 이 글은 첫 번째에 초점을 맞춘다.

1) 누구와 면접할 것인가

(1) 첫 시행착오

본 조사 단계에서 우선 벽에 부딪친 것은 누구와 면접하는가였다. 노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오후 1시에 맞춰 노인회관에 나갔지만 노인들은 인사를 받기만 할 뿐, 누구 하나 면접에 선뜻 응하려 하지 않았다. 나의 눈길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듯 했다. 이틀째 되는 날 얼마간을 소요하다가 삼삼오오 모여서 심심풀이 놀이를 즐기는 노인들 가운데 다소 소외된 듯 보이는 한 노인(당시 75세, 함남 북청 출신)이 있어서 말을 붙여 보았다. 그에게 자신과 연구 취지에 대해 정중하게 소개하고 면접을 요청하자, 관심을 보였다. 다른 노인들이 놀이를 하는 옆에서 그에게 인적 사항과 고향 관계부터 물어나가기 시작했다. 남루한 외모에 비해 그는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었다. 심지어는 일제가 우리에게서 무엇을 수탈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정치경제학적 식견까지 갖추고 있었다. 두 시간 가량을 인터뷰했을까? 얘기하는 가운데 나이가 엉기고 있다고 느꼈다. 그가 나에게 처음 얘기한 나이와 그가 얘기에 몰두하는 가운데 한국전쟁 당시의 나이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했다. 왜 차이가 나느냐고 물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고무줄나이(=임의 조작한 나이)'에 대한 내력을 설명했다. 이야기인 즉은 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나이를 늘렸다는 것.[29]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인적 사항을 신고할 때마다 군에 가지 않기 위해 나이를 적절히 늘렸다고 했다. 세 시간에 걸쳐 첫 인터뷰를 마쳤다.

다음날은 그의 집에서 면접하기로 약속했다. 문제는 그의 집에서 생겼다. 그와 인터뷰를 하는데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그의 처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돌아 왔는데, 내가 자신을 밝히고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는 계속 "늘그이한테 무얼 알

29) 그는 처음 얼마간은 자신의 주민등록 나이대로 자신의 나이를 역추산하여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얘기에 몰두하면서 그 긴장을 놓쳐버리고 실제 나이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다. 그 후에는 월남인들을 만나면 처음부터 '고무줄나이'에 대해 얘기하였다.

려고 하지," "요즘 수상한 사람들이 많다는데"라며 조사를 탐탐치 않게 여겼다. 면접이 북한의 한국전쟁 이전의 경험에 초점이 맞춰지고 토지개혁이나 민주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김일성에 대한 얘기로 흘러가자 그 부인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다. 부인의 노여움에 노인도 덩달아 화를 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데, 자꾸 해달라고 해서 너 때문에 〔처가〕 화를 내잖아." 나는 당황하여 부인에게 다시 다가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그러나 그는 냉정하게 돌아누워 "우리 집에서 나가라. 내 아들은 경찰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첫 조사가 잘 풀린다고 생각했더니 처음부터 악재가 끼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온몸에 맥이 빠져 그의 낡은 판자집을 나왔다. 하숙집에 돌아가 이제는 짐을 싸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탄식했다.[30] 나의 후견인인 하숙집 주인에게 사정을 하소연했다. 비로소 나는 '누구를 어떻게 조사하기 시작할 것인가' 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2) 소개를 통한 접근과 눈덩이식 조사 방법

처음의 시행착오를 겪은 이후 그와 같은 일은 없었다. 거저 예의만 갖추고 협조의뢰서를 보이는 것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작전을 바꾸었다. 지역에 들어와 얼마간 사람들을 소개받고 사람들을 만나 얘기하는 가운데 내 머리 속에 "인지지도(cognitive map)"가 그려졌다. 사회적 관계망이나 권력 관계망이 어느 정도 포착된 것이다. "동네유지"를 통해 구술자를 소개받는 것이 상대에게 믿음을 줄 수 있겠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청호동의 어느 공기관장이나 청호동의 10개 통장들에게 소개받고자 하는 사람[31]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그들은 나의 믿음을 대리해줄 매파였다.

조사가 세 달쯤 되자 자발적으로 면접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믿음의 관

30) 몇 일 후 행상에서 돌아오는 그의 처와 나는 길가에서 만났다. 나는 그에게 무조건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나에게 "내가 오해를 했구나. 너는 동네에 내려와서 자원봉사를 하면 동네를 위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나는 일순 긴장이 풀리며 감동을 받아 울먹였다. 그는 거친 손으로 내 손을 잡으면서, 나에게 점심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다. 다음날 그의 집에 가자 당황한 것은 나의 첫 구술자였다. 그후 그의 처는 나에게 여러 가지 반찬과 김치를 주었고 지금도 속초에 찾아가면 인사하러 가는 사이가 되었다.

31) 그렇다고 그들에게 무조건 소개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노인회원 명단을 입수하여 그것을 통별로 정리하여 통장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방식을 취하였다. 나는 최소한도로 출신고향이나 직업, 남녀를 안배하고 싶었다.

계"가 형성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 또한 선행 구술자에게 다른 대상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마치 친구들끼리 놀이를 할 때, 내가 누군가를 호명할 수 있다는 것은 작은 권력이기 때문에 호명자로서는 기분 좋은 일이어서 선행자는 다음 사람을 호명하고 그에게 나를 소개하는 일을 기꺼이 해주었다.

2) 면접 장소 결정

구술자를 어디서 면접하는가는 그의 결정에 달려 있다. 물론 나는 가급적이면 그의 집에서 하기를 희망한다. 그가 수용하면 그의 집에서 할 수 있으나 수용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장소에서 할 수밖에 없다. 다방, 노인회, 사무실 어디든지. 조금 친밀한 관계가 되면 그의 집에서 하는 재면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에서 하는 얘기와 공적 장소에서 하는 얘기간의 불일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이 들을 경우에는 '정답'[32]을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구술자 자신도 자신의 얘기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비밀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또한 조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편이다. 공적 공간에서보다 사적 공간에서 구술자들은 조사자에게 더 정중해지는 편이었다.

이런 점 외에도 그의 집에서 하는 조사는 여러 면에서 좋다. 점심 시간이 끼면 대개 처음에는 내가 식사를 대접하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를 손님으로 인식하므로 구술자 자신이 식사를 대접하고자 한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같이 식사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문화를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더 친할 수도 있다. 내가 대접을 받는 경우 나는 반드시 선물로 답례를 하였다. 또한 집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의 사진을 구경할 수 있게 되고 믿음이 쌓이면 사적 기록이나 자료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여자들은 남자 노인을 사적 공간에서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해주었다.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의 분위기는 전혀 느낄 수 없었

32) 속초 청호동에는 수 없이 많은 방송사, 신문사 기자들이 출입하므로 그들은 대개 기자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자 하는지, 자신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심지어 자신은 경상도 출신으로 청호동에 60년대에 들어왔는데, 기자 앞에서는 함경도 사람이고 한국전쟁 때 피난 나왔으며 함경도 문화가 무엇인가를 능청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다. 또한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사람들은 '술 한잔 마셔야 노인들이 얘기할 것이다' 라는 충고 비슷한 얘기를 했으나 이점에 대해서 나는 철저하게 무시했다. 노인회원 전체에게 간혹 술이나 음료를 대접하는 경우는 있어도 조사의 긴장을 갖기 위해 면접장소 외에도 어른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가급적이면 금주했다. 술은 면접을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조사자와 구술자와의 관계를 흐림으로써 면접 자체를 망치기 쉽다는게 나의 결론이다.

3) 면접 시간 결정

면접 시간[33]을 결정하는 것도 구술자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구술자들은 대개 내가 저녁이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대개 낮 시간을 택했다. 또한 노인들의 특성상 저녁시간은 곤란하기도 하다.

다음, 구술자를 만나면 먼저 확인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가 나에게 얼마나 시간을 할애해 줄 것 인가이다. 특별히 약속시간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원하는 시간까지 나는 면접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구술자를 몇 번이나 조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없었다. 그러한 결정은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어떤 구술자들은 얘기할 것이 남았는데도 면접이 귀찮아서 더 이상하지 않겠다고 나를 회피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면접이 끝날 때까지 몇 차례고 임해준다.

불의의 사고로 면접 약속이 취소되거나 면접 도중 중단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런 경우일지라도 인내심을 갖고 그런 상황을 이해하거나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할 일도 있다. 그래서 오징어 활복하는 일에 참여하거나 물건 나르는 일, 심지어는 설거지를 도와주기도 한다. 아마도 이런 모습은 구술자와 조사자인 나와의 인간 관계를 깊이는데 도움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한다.

---

33) 참여관찰의 경우에는 낮과 밤이 달리 없다. 오징어 활복 작업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작업하는 시간에 맞춰 한밤중이나 새벽에도 가야 했고 어선을 타기 위해서는 한겨울 새벽 4시에 바다로 나가야 했다.

4) 면접 과정과 내용

실제 면접은 사전 조사와 본 면접으로 진행되었다. 사전 조사에서는 그의 가계도와 이동경로를 지도상에 작성하게 하였다. 미리 준비해간 지도를 통해 그의 출발지와 경유지, 시기, 동행인, 이동운송수단 등을 기입한다. 이 과정을 통해 조사자는 구술자에 대한 대략적인 상황과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구술자의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나는 그로부터 얻은 정보로써 그에게 적합한 질문 문항을 구사할 수 있다. 어떤 질문거리는 잊지 않도록 기입해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당하지 않도록 자세한 응답은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

본 면접은 대개 고향에 대한 추억과 어린 시절에 대한 회고, 가족이야기로 시작한다. 처음에는 통과의례로 이 항목을 물었으나 몇 명을 면접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즉 '고향'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발견할 수 있고 그의 과거 생활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은 면접을 부드럽게 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내가 더 빨리 알고 싶은 것이 있을 지라도 사과껍질을 벗기는 기분으로 천천히 이야기에 몰두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자신의 현재의 시간을 되돌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간다. 사물과 인간관계에 대한 묘사는 최대한 구체적이다. 마치 그는 그때 그 자리에 서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생생하게 회고한다.

반면 대부분의 구술자들이 해방 당시 10대말, 20대 초 · 중엽이었던 시기에 대한 기억은 이와 다르다. 이 시기에 대한 회고는 현재적 평가[34]와 관련지어져 있는 탓에 기억이 충분히 세밀하지 않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구술자들에게 다소 까다로운 주문을 했다. 그들의 북한에서의 경험에 대한 평가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경우 지금의 관점이 아니라 그때의 관점으로 얘기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예를 들면, 어떤 — 사실은 많은 — 월남인들은 '민주청년동맹원'에 가입했다. 그래서

34) 현재적 평가는 그들이 월남한 이후 남한의 반공국가, 반공이데올로기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한국전쟁 주제로 구술조사를 한 바 있는 이용기(2000)의 경우에도 구술자들이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고 한다.

무슨 활동을 했냐고 물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입했을 뿐 별로 한일이 없다"는 식으로 대답한다. 38선 이북에서 살았던 5년간, 적어도 1~4년 동안은 민청원으로 가입했을 법한데 그는 이야기 끝을 흐린다. 구술자에게 주문한다. "지금의 관점에서 말씀하지 말고 그때 상황에서 했던 일을 얘기해달라"고. 그의 머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 당시를 회고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어린 시절의 회고보다도 더 선명할 수 있는데, 구술을 회피하려는 것은 혹시 머리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보도지침"이 작동하고 있는 탓은 아닐까? 만일 그들이 그냥 고향에 있어서 그 시기를 회고한다면 어떨까?

면접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한국전쟁 시기와 관련된 것이다. 그 시기는 전쟁 발발부터 피난 시절까지 포함된다. 어떤 구술자는 이 시기를 건너뛰려고 하는 기색마저 있다. 전쟁 당시 가해와 피해의 문제를 둘러싸고 그들은 소문을 전하지만 자신의 개입 여부나 정도는 가급적이면 말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엿보인다. 어떤 구술자는 당시를 회고하는 것이 괴로운 지, 얘기의 흐름이 끊어지는 일이 많다. 심지어 몇 명의 구술자들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면담을 중도에 마치거나 쉬어야 한다. 그럼에도 조사자는 전쟁 당시 구술자가 처한 상황을 회고하도록 하는데 전념을 기울여야 한다.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부분에 비해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게 된다.

정착촌에 정착하는 과정에 대한 회고는 비교적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단지 초기에는 기억이 많아 이야기가 길지만, 어느 정도 정착한 다음에는 대개 구술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편이다.

5) 질문던지기

많은 구술자들은 처음 만나면 자신의 생애를 "책으로 쓰면 소설 10권 분량"이라고 곧잘 말한다. 그러나 정작 생애사를 얘기해달라고 하면 얘기가 썩 잘 풀리지 않는다. 대체로 큰 방향의 주제를 던져주고 구술자가 얘기를 전개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질문을 피하고 그가 얘기하도록 무조건 방치해둘 수는 없다. 간혹 작은 주제를 던져주지 않으면 많은 구술자들은 어느 정도 하다가는 얘기가 용두사미격이 되기 쉽다. 구술자가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좇아 구술하도록 최대한 개입하지 않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질문을 던져 얘기의 흐름을 살려 그가 기억을

잘하도록 도와야 한다.

질문 항목은 면접 지침서에 제시한 대로 할 수 있다. 이 지침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상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아무튼 보다 구체적인 시기[35]나 상황, 사람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사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묻기 어려운 질문도 있다. 처음에는 월남인들의 북한 생활 경험을 이야기하는 데에 '김일성'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생각이 첫 구술자와의 면접이 실패로 돌아간 구체적인 원인이 되었다. 나는 '김일성'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도 당시 북한의 생활 경험이나 북한의 정책, 사실 등을 물을 수 있는 문항을 계속 생각해내야 했다.

6) 구술자에게 특정 지명이나 인명, 건물 구조 등의 기록 부탁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구술자의 필적을 남기고자 했다. 알아듣기 힘든 사투리나 단어가 나오면 한자나 한글로 써주기를 요청했다. 틀리기 않기 위한 나의 부탁은 노인의 문맹 여부를 확인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간혹은 양심에 가책이 되기도 했다. 특히 자신의 주거지나 포로수용소 등에 대해서 그린 그림은 상당히 자세하여 그의 기억의 세밀함을 측정할 수도 있었고 나의 상상력을 구체화시켜 주고 그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7) 연구일기의 작성

많은 지역 조사자들이 그렇듯이 나도 사전조사때부터 매일 연구일기(personal log)를 작성했다. 스프래들리(Spradley, 1988)는 연구일기에 조사중 발생한 모든 경험, 아이디어, 근심, 잘못, 혼동, 돌파구, 문제점을 적어 넣을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자(narrator)에 대한 반응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느낀 감정도 적도록 충고했다. 이 일기

35) 시기에 대해 물을 때는 연도보다는 나이를 묻는 것이 정확하다. 따라서 구술자의 얘기의 흐름을 좇아가되 그에 대한 몇 가지 인적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그의 출생년도와 출생월이나 출생지를 기억해두어야 한다. 발생된 계절을 잘 기억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계절이나 절기를 중심으로 묻는 것도 효과가 있다. 또 대개 노인들은 음력을 중심으로 기억하는 편이라 음력인지 양력인지에 대해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장에는 하루동안 만난 사람들과 그에 대한 간단한 메모나 연락처, 그에 대한 느낌, 조사 가운데 특이할 만한 일, 다음 면접 약속, 할 일에 대한 메모, 다음 면접 때 질문해야 할 사항, 독서 중 필요한 인용문, 찾아야 할 자료 등을 주로 적었다. 연구일기장에는 만난 사람으로부터 받은 명함이나 자료를 붙여 두기도 했다. 이 연구일기는 조사 당시의 나의 기억을 보다 생생하게 만들어 주었고 논문 작성 시에도 현장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8) 참여관찰자로서의 위치

스프래들리는 참여자 관찰의 유형을 개입의 정도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이를 잠시 정리해두자.

▶ 비참여: 연구 대상인 사람들과 활동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관찰 여부를 알리지도 않은 채, 완전히 관찰만 하는 유형

▶ 수동적 참여: 행동의 현장에 있기는 하되, 다른 사람들과 서로 깊이 관련을 맺거나 참여하지 않는 유형; 구경꾼, 방관자, 배회자; 현지 조사의 초기 유형으로 다른 유형으로 바뀔 수 있다.

▶ 보통참여: 완전 관찰자와 완전 참가자로서의 균형을 이룰 때, 개입 여부는 허용되지만 참가하지 않은 채 관찰만 하는 유형

▶ 능동적 참여: 입장을 허락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행하면서' 행태의 문화적 규칙을 보다 충실히 배우는 유형; 이런 경우에도 처음에는 앞의 유형을 거친다.

▶ 완전참여: 조사자가 이미 일상적 참가자로서 연구하는 유형(Spradley, 1988: 81-85).

다섯 가지 유형 중 어느 것이 더 좋다는 기준은 없는 듯하다. 조사 성격과 단계에 따라 참여의 정도는 결정되는 듯하다. 예를 들면 김형재(1988)는 청호동에 대한 논문을 쓸 당시 청호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그는 수동적 참여자였는데, 그가 낮은 개입 수준에서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당시 교사였기 때문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 지역을 조사, 연구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청호동 사람은 불과 소수이었다.

그러나 나의 경우에는 방법론 자체가 구술사 방법론인데다가 청호동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조사 자체의 취지나 내용에 대하여 알리지 않고는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나의 조사는 반공이데올로기에 배치되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나의 신원을 충분히 밝히지 않는 한 오해를 사거나 조사 자체가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공기관에서 시비를 걸어올 가능성이 존재했다.[36] 그러나 개입 정도는 속초와 김제의 경우 조금 달랐다. 속초에서는 6개월간의 체류를 계획했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자원교사활동도 할 수 있었으나 김제에서는 1개월을 목표로 했기에 시간 여유가 전혀 없었다. 속초에서 처음에는 보통참여자에 가까웠지만 조사과정에서 차츰 능동적 참여자로 변해 있었던 반면 조사 기간이 짧았던 김제에서는 줄곧 수동적 참여자로서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에 임할 때면 월남인들이 내게 묻는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는 내 출신이 월남인 후세냐는 것이다. 나는 월남인 출신도, 속초 출신도 아니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다소 흐뭇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지만 나로서는 자신이 월남인 출신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 주제로 조사하는데 약점이기도 하지만 강점이기도 하다고 여긴다. 이런 점이 완전 개입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들로서는 자신의 비밀을 내게 이야기해도 퍼지지 않으리라고 안심하게 만드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김제에서는 내가 경상도 출신이라는 점이 용지농원 월남인들이 지방색을 유감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장점(?)으로 되기도 했다. 이것은 현대 한국의 지역차별주의가 낳은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외국인이 낯선 사회와 문화를 연구하는 경우와도 유사한 점이 있다.

---

36) 이와 같은 사태가 속초에서 사실상 벌어졌다. 나를 수상히 여긴 사람에 의한 고발이 시청에 몇 차례 들어가는 통에 나의 하숙집 주인이 대신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를 보증하여 나는 그런 일도 모르고 지나갔다. 김제에서 이러한 일은 몇몇 주민들간에 "빨갱이 낙인 소동"으로 나타났다. 조사 자체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았으나 당시에는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반시나(Vansina, 1985)도 지역 조사에서 겪었다. 조사 초기에 주민들은 자신을 '마녀'로 혐의를 두었다고 한다. 이는 낯설면서 동시에 많은 정보(일종의 권력)를 가진 사람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4. 조사 시 원칙과 갈등

1) 전문가의 윤리[37]

사회학이나 사회과학은 사회와 사람을 주 대상으로 하므로 연구 활동에는 지침이 필요하다. 한때 사회학이나 인류학 등과 같은 학문은 제국주의 침략의 첨병으로 역할을 했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다. 이에 인류학은 1971년 미국 인류학회 회의에서 《전문가의 책임에 관한 원칙》을 채택하였다. 전문가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 인류학자들은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과, 연구하는 상황과 밀접한 인간 관계를 맺으면서 작업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작업적 상황은 독특하고 다양하며 복잡하다. 그들은 그들의 학문분야와, 동료들과, 학생들과, 후원자와, 그들의 주체와, 그들 자신과 현지 정부와, 현지조사 대상인 독특한 개인과 집단과, 인간의 일반 복지에 영향을 주는 연구 과정과 연구 주제, 이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
>
> 이와 같이 복잡한 연관, 오해, 갈등 및 갈등을 빚는 가치 중에서의 선택 등등은 필연적으로 윤리적 딜렘마에 빠지게 만든다. 이런 것을 예측하고 해결책을 세워, 연구 대상인 사람들에게도, 가능한 한 학문 세계에도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것이 인류학자의 중요한 책임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곳에서는, 그 인류학자에게 그 특별 부분의 연구를 추진하지 말도록 잘 조언해 주어야 한다(Spradley, 1988).

우선 이 원칙 중 중요한 조항에 대해서 나는 면접과정에서 어느 정도 준수했는가를 반성하고자 한다.

> 원칙의 제1조: 연구시 인류학자는 그가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상의 책임을 진

37) 전문가의 윤리는 구술사 연구자에게만 필요하다기 보다는 연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대중을 상대로 하는 언론인이나 공무 담당자에게도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많이 고민했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윤리적 원칙을 짚어보기로 한다.

다. 이해 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때에는 이 개인들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그네들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복지를 보호해 주고, 그네들의 명예와 사생활을 지켜 주기 위하여 인류학자는 힘닿는 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연구자가 아닌 구술자를 중심으로 고려하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지킬 수 있지만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다. 내 글이 세상에 발표되자 여러 기자들이나 방송사, 작가들이 연락하여 어떤 사람을 소개해 해달라고 부탁했다.[38] 그때 나는 대부분의 경우, 공식적인 통로를 소개해주는 일로 그친다. 어떤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다른 면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원칙의 제1조 a항: 사람들 간에 서로 믿고서 전해 준 물건이나 정보를 얻어 연구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권리, 이해 관계, 민감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철칙이다.

어떤 구술자는 면접을 하고 난 후, 어떤 자료에 대해서는 없애줄 것을 요청했다. 익명으로 발표될 것이므로 상관없다고 설명해주어도 소용이 없다. 이때 나는 갈등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요청을 받아주어야만 한다. 또 어떤 대상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녹음을 중지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심지어는 녹음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와의 신뢰에 금이 가게 된다.

원칙의 제1조 b항: 조사의 목적은 정보제공자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그가 그 목적을 수용해야 면접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원칙은 모든 조사자에게는 철칙일 것이다. 물론 나는 대상자들에게 조사 항목을 다 보여주었다. 그런데 요는 어느 정도의 조사 목적 또는 의도를 공개하느냐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반문하는데, 나의 중요한 연구 동기이자 문제의식의 하나인 "반공이데올로기의 역사적 허구성"문제를 처음부터 그들에게 제시하였다면 그들이 과연 면접에 응했을까? 이 점에서 나는 윤리적 원칙을

38) 사람의 이름을 쓸 때 나는 가명을 원칙적으로 쓰기 때문에 외부인은 대상자를 찾기 곤란하다. 그런 시도를 했다가 어쩔 수 없이 내게 연락을 취한 사람들도 보았다.

위반했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험프리(Humphrey)는 동성연애자로 가장하여 그들이 자주 모이는 카페에서 그들에게 접근하였다. 그의 연구는 훗날 윤리적 관심을 촉발시켰다(Baldridge, 1979). 연구 조사에서 '가장' 할 수 있는가? 가장하는 조사 연구자들은 적지 않다. 마약 거래자나 사용자, 또는 범죄자들을 연구하기 위해 마약 사용자나 범죄자로 가장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자신의 역할을 속이는 것은 비윤리적인가? 조사를 위해서라면 가장해도 좋은가? 이 점은 아직까지도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 원칙의 제1조 c항: 정보제공자들은 익명으로 남아 있을 권리가 있다. 공개적으로 약속했건, 반대로 분명하게 알리지 않았건 간에, 이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 이런 금지 조항은 면전 면접과 참여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과 마찬가지로, 카메라, 녹음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한 자료 수집에도 적용된다(……).

모든 대상자들은 익명으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익명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위신이나 자존심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만일 반공주의가 지배적인 분위기였고(그 경우에는 조사자체가 불가능했겠지만), 그래서 그들의 익명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신원조차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 몇 대상자들은 이 조사로 인해 자신이 쇠고랑을 차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기도 했다. 그 걱정이 농담이건 진실이건 나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도록 정보제공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끝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 중 하나이다.

> 원칙의 제1조 g항: 정보제공자가 보고서를 볼 수 있게 하라.

나는 논문이 되자마자 그들에게 내 논문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읽기를 바라지만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교수나 동료, 익명의 독자들, 공공기관이 내 논문을 접근할 수 있듯이 그들도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심지어 조사 과정에서 드물게 어떤 대상자는 현재까지 기록된 것을 보여주기를 희망해도 역시 보여주었다.

2) 불일치의 문제

간혹은 같은 질문에 대해 첫날 면접내용과 둘째 날 면접내용이 다를 경우 나는 그 불일치를 놓고 따져 묻는 편이었다. 차이 자체도 흥미로운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는데 나는 여전히 '사실' 자체에 관심이 많았다. 내가 아직도 이런 문제에 대해 미숙하기 때문에 참지 못했다. 그것이 구술자의 착각 때문인지, 거짓말 때문인지 가려내고 싶어했다. 용지농원의 어느 구술자는 셋째 날, 마지막 면접날에야 첫날 나에게 거짓말을 한 지명이 있음을 털어놓았다. 나로서는 그 지명이 '가' 이거나 '나' 이거나 별 차이도 없었지만 그로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면접 내용과 소문의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 끝에 구술자의 구술을 일차적으로 수용하기로 작정했다.[39] 속초에서의 일이다. 어떤 구술자를 면접하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구술의 일부와 소문은 상반되었다. 소문의 진상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그가 얘기하지 않는 한, 나는 그에게 진위가 궁금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나는 구술자의 구술을 일차적으로 신뢰하고 그 경험이 소문보다 더 가치롭다고 생각한다.[40] 단지 그 확인을 위해서 동일한 맥락 위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어떤 월남인은 얘기한다. "우리의 얘기는 70% 정도만 믿으라."

3) 친숙함과 낯섬

조사 지역이나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해 낯설게 느끼는 것은 조사하는 데 일정한

39)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구술사가들이 많이 봉착하는 문제로 보인다. Stephen Caunce도 같은 입장을 취하여 "직접적인 경험이 소문보다 더 가치롭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것, 또는 누군가가 내게 말해 준 것에 대해서는 나는 신빙성을 갖고 논평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어떤 사람의 말은 단지 소문일 뿐이다." (Caunce, 1994)

40)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노리와 헬터라인(Nouri and Helterline, 1998)이 말하는 '서사적 자아(Narrative Self)' 이다. 서사적 자아란 노인이 훗날 생애경로를 말하는 가운데 구축되는 자아이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주관성의 개념을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좌지우지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곤란을 줄 수 있지만, 사물을 새롭게 보는 힘이 되기도 한다. 즉, 일정한 거리는 사물이나 사람, 사건을 관찰하도록 해준다. 대략 조사하기 시작하여 두 달간은 일정한 거리의 시선이 유지되었다. 사회적 상황에 '덜' 익숙하면 할수록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내면의 문화적 규칙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된다(Spradley, 1988). 나는 가급적이면 R1이나 R2에게 지역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을 물어보았다. 대부분의 질문들은 그들로서는 당연한 것이어서 별로 생각하지 않던 것이다. 그러한 질문 가운데 그들이 규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거리감은 일정한 정도의 긴장을 요한다. 간혹 공부방 아이들에게는 자극을 주기 위해 차이를 드러냈다.

한편 낯섬 또는 거리감은 친숙함과의 대립개념이므로 사람들과의 믿음을 쌓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옹(Walter J. Ong, 1996)은 구술사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거리 유지보다는 감정이입적 혹은 참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방면의 많은 연구자들도 동감한다. 나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김제에서는 하숙집 주인이 교회 장로여서 다니기 싫은 교회도 매주 나갔다. 동네사람들과 친숙해지기 위해 거리를 걷다 사람들을 만나면 웃으며 열심히 인사하곤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웃고 다니니 "바보 같다"고 솔직히 말해주기도 했다. 사실 지방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를 잘하지 않는 게 다반사여서 친숙함을 만들려는 의도적인 행위가 어떤 의미에서는 거리감을 시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조사가 삼 개월 째 되면서 사람이나 사물과 친숙해지자 새롭던 기분이 사라지고 만사가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했다. 만나는 사람은 달라도 같은 질문을 계속 한다는 것이 고역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때 병에 걸려 일주일 정도 누워 있었다. 아마 팽팽했던 긴장이 풀렸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친숙함과 낯섬은 조사 기간 동안 나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친숙해지되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 특히 남자 노인들과의 면접에서 몇몇 사람들이 충고해준 '술'에 대한 문제는 거리감 유지를 위해 거절했다. 내가 남자여서 남자 노인과 술을 마시며 면접을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런지 모르겠다.

5. 구술사 방법론과 다른 방법론과의 관련

구술사 방법은 전체사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학술적인 역사의 중요한 종류로 평가되고 있다(Caunce, 1994). 조사 및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구술사 방법이 유일하게 좋은 방법론은 아니다. 어떤 연구의 경우에는 구술사 자체만으로 하나의 결과물로서 존재한다. 예를 들면 송도영 · 진양교 · 윤택림 · 오유석 등이 쓴 《20세기 서울 현대사》(2000)이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편)의 《격동기 지식인의 세 가지 삶의 모습》(1999), 한국교육사고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50년 구술사 자료집(1)》(1999) 등이다.[41] 이 결과물들은 대개 해제를 따로 붙이고 증언을 중심으로 한 '자료집' 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여러 월남민들의 일상적인 경험을 역사적으로 추적하여 주제별로 정리하고 정체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구성을 목표로 그들의 구술을 재구성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그들의 경험을 역사 위에 세우기 위해 나는 숱한 기존 문헌 자료를 참고하였다. 즉 구술사 방법론을 통하여 월남민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헌 연구로서 한반도 분단과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속초와 김제 지역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이해를 위해서도 문헌 자료에 의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월남인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기존의 이론도 개념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해 잉거(Yinger, 1985) 등의 '출현적 정체성' 개념이나 말끼(Malkki, 1995)의 난민 정체성 개념은 월남인 정체성을 접근하는 개념틀을 제공하여 기존의 '실향민' 정체성과 '정착민' 정체성을 개념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 구술하는 과정에서 기존 문헌에 도전하거나 그 문헌을 보충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문헌이나 정부의 공식담론이 설명해온 월남인의 월남동기나 월남인의 경험, 또는 월남인 정체성[42]이 본 구술사 방법론을 통한 월남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화가 곤란한 허위의식에 가까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

41) 정대협 산하의 '2000년 법정 진상규명위원회 증언팀' 은 일제에 의해 끌려간 군위안부들의 증언을 받았고 그를 토대로 2000년 12월 도쿄 법정에서 남북 공동기소문을 작성하였으며 조만간 증언집을 만들 예정이다.

42) 이를 본 논문에서는 '실향민 정체성' 으로 명명하였다(김귀옥, 1999).

또한 속초 지역사에서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시기까지의 기록이 드물어 구술사 방법론은 공백으로 남은 속초지역 현대사 연구에도 크게 기여하는 바가 있다.[43]

한편, 지역 조사에서 구술사 방법론은 참여관찰법에 의해 지지 받고 있다. 참여관찰 자체도 의의가 있었으나 이 방법론은 구술사 방법을 전개하기 위한 선행 방법으로도 주효하였다. 참여관찰에 의해 발견하게된 지역의 권력관계망과 사회적 관계망은 구술사 방법을 풀어나가는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또한 월남인 세대간 비교연구를 위하여, 2세대의 경우에는 구조화된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조사하기도 했다. 이 접근법을 통하여 월남인 2세대의 부모세대에 대한 인지 정도나 지역 정착 과정, 지역 만족도, 월남인 의식 등을 조사하여 세대간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소수의 2세대에게도 심층면접을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2세대에 있어서는 이것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연구 목적에 따라서 단일한 방법론만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론은 하나의 방법론이 불충분한 영역을 보완해주거나, 해석의 여지를 넓혀주고, 이론적으로 개념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6.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며

이상에서 학위논문의 중요한 자원을 발굴시켜준 지역 조사와 구술사 방법론과 그 수행 과정을 대강 살펴보았다. 구술 자료 분석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정리하지 못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갈등이 있었고 몇 가지 성과도 있었다. 아무튼 나는 이 연구를 '밑으로부터의 월남인 연구' 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시기 서구에서도 구술사 연구는 일정하게 정치적으로 억압된 층이나 소수민족, 여성의 목소리를 낼 때 중요한 방법론이 되어 왔다. 또한 구술사 방법론은 신문화사(New Cultural History) 연구 또는 포스트모던 역사학에도 중요하게 응용되어 왔다. 폴 윌리스는 계급의식이 어떻게 세대간 전승이 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노동계급의 아이들을 관찰하고 심층면접을 하였다(Willis, 1989). 미시사 또는 일상생활

43) 챈스(Caunce, 1994)는 구술사 방법론이 지방사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사 속에서 거시 구조의 파편이 반영되어 있는가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진행중이다(김기봉, 1996; 1997). 또한 사회주의 역사나 노동운동사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김현식, 1998).

반성적으로 고찰하면, 1980년대초에 사회과학 공부에 입문한 나로서는 일차적 관심이 구조였다. 그러한 관심은 일면 사고를 구조결정론으로 흐르게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사고가 근본적으로 수정된 것은 아니지만 1990년대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그 구조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각종의 행위를 하고, 구조나 세상을 구성하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해 미시 행위는 거시 구조에 어떻게 맥락지어지는가로 관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학위논문에서는 바로 한국전쟁과 월남인을 통하여 미시 행위가 거시 구조에 어떻게 포섭되고 왜곡되고, 그럼에도 부정합적으로 존재하는가를 보이려고 했다. 그 결과 내가 포스트 모던적 가정으로 월남인 문제를 접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발견한 구성물은 결국 반공에 기반한 거대담론의 분열성이었다. 그러한 발견을 하는데 구술사 방법론은 결정적인 기여를 해주었다.

나는 학위 논문을 통하여 분단과 냉전 이데올로기가 한국사회를 어떻게 지배해왔는가를 월남인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속에서 구성해 내려고 시도했다. '빙산의 1%' 정도를 건드렸다고나 할까? 이제 다시 99%의 다른 조각들을 찾고자 한다. 당분간은 연구 주제의 큰 방향은 분단과 냉전, 반공의 일상세계와 지역, 소수민으로 갈 것이다. 소수민 속에는 정치적으로 억압받아온 사람들이나 지방민, 여성, 장애인 등이 포함된다. 그 연구를 위한 유일한 연구방법론이 구술사 방법론일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간 지배 이데올로기가 하위 이데올로기로 삼아온 반공주의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중앙집권주의, 권위주의 등의 아성을 깨뜨리는 데에는 생활세계 주민들의 경험과 정체성이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문헌 자료의 제한성을 인식하게 하고 극복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구술사 방법론은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정구(1992), "해방후 월남동기와 계급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풀빛.

김귀옥(2000),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 미군정 통치와 반성," 《경제와사회》 여름호.

_____ (1999가), "아래로부터의 반공 이데올로기 허물기: 정착촌 월남인의 구술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가을호.

_____ (1999나), "정착촌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 속초 '아바이마을'과 김제 '용지농원'을 중심으로 —,"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_____ (1999다),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 출판부.

김기봉(1996), "독일 일상 생활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서양사론》 50.

_____ (1997), "미시사-하나의 '포스트모던적' 역사 서술?" 《역사교육》 61.

김기석 · 이향규(1998), "구술사: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 제12회 〈한국현대사연구 집담회〉 발표문.

김현식(1998),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상적 위기와 현대 역사학," 《역사비평》 봄 통권 42호.

_____ (1999), "포스트모더니즘은 역사학의 종말인가," 《역사비평》 봄 통권 46호.

박명규(1996), "중앙아시아 한인의 집합적 정체성과 그 변화," 한국사회사학회 엮음,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문학과지성사.

박명선(1983), "북한 출신 월남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사고 엮음(199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50년 구술사 자료집(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손명철 편역(1994), 《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 명보문화사.

송도영 · 진양교 · 윤택림 · 오유석(2000), 《20세기 서울 현대사》, 서울학연구소.

유철인(1996), "생애이야기의 주제와 서술전략," 《한국문화인류학》 29집 2호.

윤택림(1995), "기억에서 역사로: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5집.

이동원 · 조성남(1997), 《미군정기의 사회 이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용기(2000), "마을에서의 전쟁 경험 — 경기도 지역의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 역사문제연구소 심포지엄 《한국전쟁은 민중에게 무엇이었나》 발표문.

이재열(1998), "사회과학의 질적 연구 방법: 양적 방법과의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 패션마케팅연구회 연구방법론 세미나 발표문.

정혜경(1999), "한국 근현대사 구술자료의 간행 현황과 자료가치 —《지운 김철수》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3.

조은 · 조옥라(1991),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 사당동 재개발지역 현장연구》, 서울대 출판부.

한경구(1994), 《공동체로서의 회사: 일본기업의 인류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편)(1999), 《격동기 지식인의 세 가지 삶의 모습》,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상복 · 권태환(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허석렬(1982), "도시무허가정착지의 고용구조에 관한 일 고찰."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엮음. 《한국사회학연구》 6: 173-203.

Baldridge, V.(1998[1980]), 《사회학 — 비판사회학의 입장에서 —》, 이효재 · 장하진 옮김. 경문사.

Burke, Peter(1992), *New perspectives on historical writing*. Polity Press.

Caunce, Stephen(1994), *Oral History and the Local Historian*. London: Longman.

Crapanzano, Vincent. et al.(1986), "Personal Testimony: Narratives of the Self," *Items of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40(2); 윤택림(1994), "기억에서 역사로," 《한국문화인류학》 25 재인용.

Dunaway, David K., Willa K. Baum(eds)(1996[1984]), *Oral History: An Interdisciplinary Anthology*. CA: Altamira Press.

Fawcett, James T. and DeJung Gordon F.(1982), "Reasons for movings and migration behavior," in UN-ESCAP(eds.). *National Migration Surveys X, Guidelines for Analysis*. UN-ESCAP; 변용찬(1991), "농촌귀환이동," 문현상 외.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재인용).

Gans, Herbert. J.(1982[1962]), *The Urban Villagers: Group and Class in the Life of Italian- Americans*. New York: The Free Press.

Goffman, Erving(1987[1959]), 《자아표현과 인상관리》, 김병서 옮김, 경문사.

Hinchman, Lewis P. and Sandra K. Hinchman(1997), *Memory, Identity, Community: The Idea of Narrative in the Human Science*.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Hoope, James(1995[1979]), 《증언사 입문》, 유병용 옮김, 한울아카데미.

Kendall, Laurel(1988), *The Life and Hard Times of a Korean Shaman*. University of Hawaii Press.

Lefebvre, Henri(1992),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옮김, 세계일보.

Leydesdorff, Selma, Luisa Passerini, and Paul Thompson(eds.)(1996), *Gender and Memory*. Oxford University Press.

Malkki, Liisa(1995), *Purity and Exile: Violence, Memory, and National Cosmology Among Hutu Refugees in Tanzania*.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Nouri, Marilyn and M. Helterline(1998), "Narrative Accrual and the Life Course," *Research on Aging* Vol. 20 No. 1. Jan.

Ong, Walter J.(1997[1982]),《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 · 임명진 옮김, 문예출판사.

Ritchie, Donald A..(1995), *Doing Oral History*. NY: Twayne Publishers.

Spradley, James, P.(1988),《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이희봉 옮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Stave, Bruce M.(1994), *From the Old Country: An Oral History of European Migration to America*. NY: Twayne Publishers.

Steedman, Carolyn(1986), *Landscape for a Good Woman*. Rutgers University Press.

Strauss, Anselm and Juliet Corbin(1996[1990]),《근거이론의 이해》, 김수지 · 신경림 옮김, 한울아카데미.

Vansina, Jan(1985), *Oral Tradition As History*.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Whyte, Willam F.(1955[1943]), *Street Corner Society*. Illinois: Chicago University Press.

Willis, Paul,《교육현장과 계급재생산 — 노동자자녀들이 노동자가 되기까지》, 김찬호 · 김영훈 옮김(1989), 민맥.

Whyte, William Foote(1981), *Street Corner Society: The Social Structure of an Italian Slum*. Third E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Yinger, J. Milton(1985), "Ethnic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151-180.

Yow, Valerie Raleigh(1994), *Recording Oral History: a practical guide for social scientists*. CA: SAGE.

abstract

Wollam'ins in Sokcho and Kimje: Toward a New Study Based on Qualitative Methodologies

Kim, Gwi Ok*

The major object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the methodology used in the course of preparation for my Ph.D. dissertation. I hope that this will help me carry out new fieldwork and research better. And I expect that this may serve as groundwork for other researchers.

I researched two areas, Sokcho and Kimje, where displaced Wollam'ins from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gathered. As I had little material on these areas, I had to use methodologies that would help me find the many hidden facts. I came to select major fieldwork and oral history from among several methodologies to approach the subject.

The oral history method led me through the personal experiences of the Wollam'ins. Though 5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Wollam'ins settled in South Korea, they still seem to be depressed politically by anti-communism. When I interviewed and re-interviewed them and became familiar with them gradually, I came to hear the voices that came from deep inside them. I also found that they corrected their own mistakes and distorted memories during the retellings. And while researching and studying the subject, I made many mistakes because of my methodological immaturity, my lack of understanding of

*Visiting Professor of The Graduate School of North Korea, Kyungnam University and Post-Doc.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Research Area: Historical sociology, Social Studies on North Korea, National Sociology, Feminist Studies. Major Publication: *The Identity and Life Experiences of Wollamin*(1999), *How Are the Women Living in North Korea?*(2000), "Another Piece of Lost Korean History: A Study on the Military Government of Kangwon Province during the Korean War"(2000), "Splitting Anti-community from the Bottom up: Through Oral History of *Wollamin*"(1999), "The Study on North Korean Society: Trends and Issues"(1998). E-mail: freeox8@orgio.net.

human beings, et al.

I explain how valid or difficult the participant observation method is. It was valuable in that it could help me observe the social relationships of the villagers and their actions and reactions under everyday-life as well as extraordinary conditions. Moreover it became a map that facilitated the oral history. Unfortunately, effectiveness of the participant observation method was inversely proportional to my familiarity with the observed subjects. As time passed, I found the new fewer and fewer. As I became more familiar with the villagers, moreover, it became more painful for me to treat them as objects.

Qualitative methodologies, including the oral history method, are effective, not only to a general social survey, but also in studying illiterate subjects and social minorities. But they are insufficient. We can mitigate their weakness with quantitative methodologies, documentary methods, et al., or vice verse. In any case, qualitative methodologies should be used more broadly in studying people in everyday life, women, the disabled, the elderly, the poor, and social minoriti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ety, history, and human beings.